밀접하다고 좋아하면 큰 탈난다

(욥기 13:20~28)

20.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1.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22.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3.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밀접하다고 좋아하면 큰 탈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밀접하다고 좋아하면 큰 탈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밀접한 관계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높은 밀접도에서 낮은 밀접도의 대상들을 향한 물결모양의 삶의 영역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제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 삶에서 가장 가운데 서클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서클에는 친구 목사님들이나 친척들과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삶의 영역에서 육체를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넓어지는 영역에는 우리나라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물결의 파장처럼 형성되는 삶의 영역들은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불행이나 행복은 현상적으로는 이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기쁘거나 그렇지 못한 원인은 아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밀접도가 떨어지는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집안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도 이러한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가장 밀접한 자들이 모인 집안이 화평하다면 밀접도가 떨어지는 다른 서클의 영역에서도 삶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불행한 순간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원인이 밀접한 관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육체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외모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불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감정들의 원천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밀접한 관계의 대상들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곧 관계하는 동안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TV프로그램을 좋아하면 그것을 시청하는 동안에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이 좋아함에 소중함이 곁들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지만 모두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즐기기만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난봉꾼이 여자를 소중히 여기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밀접한 관계의 대상들을 좋아하거나 사랑함으로부터 삶의 불행은 생겨납니다. 가령 여러분이 가족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불행은 80~90%는 제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밀접한 관계의 대상들을 좋아할 때에 그것을 마음의 공백에 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대상들을 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유착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담은 대상들이 붙어서 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인체의 장기들에는 서로를 유착되지 않도록 장기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은 서로 밀접하게 붙어있는 장기들이 서로 엉겨 붙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시켜놓은 자장면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엉겨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장면을 시켜놓고 내버려두면 다 엉겨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됩니다.

소장의 구불구불 엉킨 부분이 스스로 달라붙거나 다른 장기에 붙어버린다면, 유착된 부분이 운동을 못하게 되어 피가 안 통하게 되어서 가스가 차고 음식물을 내려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여성들이 겪는 자궁유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엉겨 붙으면 불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좋아해서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나 사물이나 나라와 민족이 살이 되는 유착현상이 일어나면서 인생의 모든 불행이 나타나는 시작점이 됩니다.

앞서 본문에서 욥은 지독스럽게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에게 주어진 재앙의 10%만 주어져도 하나님의 형벌로 받아들여서 통회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을 텐데, 욥은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격적 주체성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었지만, 욥은 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주체성을 징역살이 시켜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체성이 없었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었

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라고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없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괴롭고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에는 주목하지 못한 채, 재앙의 현상만 보면서 하나님의 형벌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재앙들은 본래 욥에게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회의에서 욥의 경건을 두고 내기를 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욥은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으로 뵙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자신의 잘못 없음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유전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마음의 공백을 채워야만 살아 갈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 이외의 세상 것들로 채우려는 성향이 바로 유전 죄입니다. 즉 죄악 된 상태는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 때에 가장 쉽게 담기는 것은 육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담긴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담긴 것들을 손에 쥐고 싶어 하고 담은 것들의 형통을 바랍니다. 자녀를 담으면 자녀의 형통을 바래서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 추진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신앙이 아닌 죄악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일일뿐입니다.

그러나 욥이 마음에 밀접한 대상들을 담은 것은 같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인격적 주체성의 알리바이를 유지하며 살았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욥의 경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하나님과 1:1로 소통하며 마음에 하나님만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욥은 마음에 가진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반쪽짜리 의로움은 있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는 마음에 담겨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육체와 가족과 아내 재산 명성이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1:1로 뵙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관계에 돌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전 죄로 태어난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들여놓고 살 수 밖에 없고 마음이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서 이것들을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내기에서 욥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재앙을 주셨지만, 또한 이 재앙을 통해서 욥을 더욱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담았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자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마음에 세상이 유착되

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착된 장기들을 떼어낼 때에 상처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자장면이 한 덩어리가 되듯이 세상이 마음의 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낼 때에 큰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게 된 여성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슬퍼만합니다. 마음에 살이 되어버린 사랑하는 남자가 찢겨져 나갔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유착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큰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를 노리개로 아는 난봉꾼이라면 여자가 떨어져나가는 것을 아픔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서 소중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육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들을 담으면 이러한 불행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담아서 좋아해서도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다면 밀접한 관계가 생겨나게 된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런 밀접한 관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서 생겨난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들입니다. 기쁨은 표현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표현할 때에 기쁨은 배가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것은 배우자에게서 기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기쁨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므로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형통을 보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만나기 전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생긴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으로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이 없다면 배우자도 자녀도 애인도 만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할 때에 인생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전 죄 때문에 세상 것들을 마음에 담았고 또한 계속 담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처럼 재산도 빼앗아 가시고 자녀도 다 죽여 없애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서 나의 죽음을 대신하셨고, 내 마음에 담겨지고 살이 되어버린 유착관계를 끊으신 것입니다.
욥에게도 십자가가 있었다면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픔을 겪은 욥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와 십자가에서 어떤 은총이 베풀어졌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음에 배우자를 담았다면 그것이 곧 죄악입니다. 죄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의 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잃는다면 큰 아픔일 것입니다. 그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이 찢기신 이유도 내 마음에서 유착된 것들을 찢어낼 때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내게 있는 것도 주님께서 살이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자녀를 담은 것이 죄악이지만, 그것을 뜯어낼 때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당신의 살을 뜯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식을 담은 나의 모습이 죽은 모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욥이 당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밀접한 관계를 좋아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마음은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도 '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오 내 기뻐하는 분이시라'고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자리에 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밀접한 관계의 대상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 자녀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을 하라며 닦달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기뻐하는 나의 기쁨을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을 표정으로 대화로 몸짓으로 드러내며 살게 하시려고 밀접한 관계를 허락해주신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를 좋아하면 큰 탈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들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좋아하는 내가 끊임없이 죽음으로서 하나님만을 좋아하며, 그로 인한 기쁨을 밀접한 관계들에게 표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